20장 - 큰 영광중에 계신 주

- (1) 큰 영광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 (2)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 (3)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 (4)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 멘

220장 - 사랑하는 주님 앞에

-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1월 25일(월) 기도 담당 : 김홍수 집사

2021년 1월 23일(토)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연	범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가 함	께
찬 송…	······ 20장 ······ ː	가 함	께
기 도…	(기경승	집사
성 경 봉 독…	······ 디모데전서 5:1~4, 8····· 디모데전서 5:1~4	인 도	자
설 교…	········『가족에게 하듯, 주께 하듯』·······	검재광	목사
기 도…	·····································	가 함	께
찬 송…	······· 220장 ········· ː	가 함	께
축 도…	?	철 교	자

□ 오늘의 말씀 < 디모데전서 5:1~4, 8 >

- 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 2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 3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만하신 것이니라
-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 참고구절: 디모데전서 5:16

-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 주고 교회가 집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라
- ※ 참고구절: 시편 133:1
-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1년 1월 23일(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장중에 보호하시고, 이른아침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과 용서로, 회개와 절제로'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가족과 같이 바라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길 원하는 것만큼, 먼저 우리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허락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사회와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며, 우리를 현혹하는 이야기들이 매체를 통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깊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깊이'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어제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시며, 새문안의 모든 교우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이 민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사 악한 영의 계획을 파하여 주옵시고, 북녘의 지하교회를 주님의 뜨거운 품으로 안아주사,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